

크리스마스와 새해맞이 놀이들

전 국 재 / 소장,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



예 수님의 생일, 성탄절이 다가온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YMCA에서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라는 운동을 벌이셨던 관계로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아버지 손을 잡고 번잡한 명동길을 거닐던 생각이 눈에 선하다. 그런 다음 우리 가족은 시끌벅적한 그 거리를 빠져나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생일잔치에서 노래를 부른 덕에 선물을 한아름 타고 오던 기억은 나이가 든 지금에도 내 마음을 들뜨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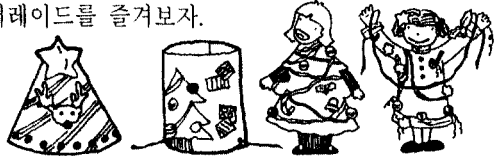
그리고는 우리 온 가족은 집에 돌아와서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당기고 조용히 예배드렸다. 나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성장해 왔던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상품을 타는 재미보다는 성가대원으로 성가곡을 연습하면서 예수님의 성탄일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제는 나도 열 살 된 딸과 여덟 살 된 아들을 둔 애비가 되고 보니 예수께서 왜 우리 곁에 오셨는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차례가 되어버렸다.

독자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너무 요란스럽게 보내지 맙시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고요하게 맞아 봅시다. 오늘은 조용한 가운데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 다음 가지는 축하 잔치에 적절한 놀이 몇가지를 소개한다. 이 자료들이 성탄절과 새해를 맞아 준비하는 모임에 조금의 도움이 라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인간 크리스마스 추리

3~6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크리스마스 추리가 될 여자 또는 남자 한사람씩 정한다. 그룹별로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물들이 들은 상자 한 개씩을 나누어주고 여자를 추리 삼아서 장식하도록 한다. 시간은 10분 정도가 적당하며 이미 만들어진 장식만 사용하기 보다는 가위, 풀, 핀 등을 사용하여 색종이를 잘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두 마친 후에는 인간 크리스마스 추리들이 벌이는 퍼레이드를 즐겨보자.

2. 크리스마스 모자 만들기



참가자들의 규모에 따라 2~4개 그룹으로 나눈 다음 그룹별로 색종이, 가위, 풀 등을 주고 그룹의 특성에 맞는 멋진 모자를 만들도록 한다. 시간은 10분을 크게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모자를 다 만든 다음에는 그룹끼리 경연을 벌이며 모임을 마칠 때까지 쓰고 있을 수 있다.

3. 산타 할아버지 선물주머니

술래를 제외한 참가자 전원이 원대형으로 의자에 앉는다. 이때 인원수와 의자수를 맞추어 여분의 의자가 없도록 한다. 그런 다음 참가자들은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 주머니에 들어 있는 선물이 되는데, 따라서 참가자 전원이 각각 다른 선물 이름을 정해야 한다. 게임이 시작되면 술래는 산타할아버지가 되어 원 안을 돌아 다니며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필요한 선물을 고르는 시늉을 한다. 술래에게 지적당한 사람들은 의자에서 일어나 술래의 어깨에 양 손을 얹고 술래를 따라 원을 돌아야 하는데 술래가 갑자기 "자, 떠나자!" 하고 외치면 술래와 원 안의 사람들은 쩍싸게 비어있는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이때 한 사람은 당연히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 사람이 술래가 되어 다시 계속한다. 술래가 재담을 곁들이면 한결 재미있다.



4. 인형 땀매

멕시코인들이 크리스마스날에 즐기는 민속게임이다. 사탕이나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을 가득 담은 종이 봉지 윗부분을 끈으로 단단히 묶은 다음 다른 종이나 헝겊을 사용하여 남자 또는 여자인형을 여러개 만든다. 인형 안에 종이봉지를 붙이고 그 인형을 천장에 매달고 참가자 중에 한사람씩 교대로 나와서 눈가리개를 하고 신문지를 들들 말아서 단단하게 만든 종이봉둥이로 인형을 때린다. 전원이 번갈아 가면서 하고 인형이 터져서 내용물이 바닥에 떨어지면 나머지 사람들은 달려들어서 줍는다. 사탕이나 과자 대신에 현신발짝이나 밀가루를 넣은 인형도 몇개 준비해 두자(?).



5. 내 선물은 어디에?

명절이 되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 받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참가자들이 준비해 온 선물을 진행자가 미리 수집하여 무작위로 선물에 참가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는다. 그런 다음 모임 장소의 은밀한 곳에 선물들을 흩어서 몰래 감추어 둔다. 소위 보물찾기인데 일단 사작이 되면 자기 이름이 적힌 선물을 찾아나서는데 자기 선물을 찾는 중에 발견한 남의 선물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를 해야 한다. 참가자 전원이 선물을 찾은 다음에는 선물을 뜯어 보면서 누가 보낸 선물인지를 알아보는 동안 정겨운 대화가 오갈 것이다. 성탄절과 새해 선물을 자녀들에게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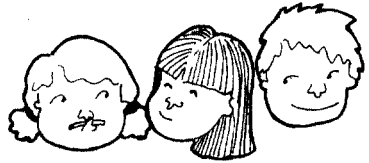
6. 묵은 해여 안녕

2~3 그룹으로 나누고 릴레이 대형으로 선다. 반환점에는 작은 테이블 위에 촛불 한개를 켜 놓는다. 그런 다음 각 팀별로 한사람씩 눈가리개를 하고 시작신호가 울리면 촛불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촛불을 끈다. 당연히 먼저 끈 사람이 이기게 되며 이런 식으로 다음번 사람들이 다시 한다. 주자 외에 다른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서 자기편이 촛불을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이때 주자는 손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진행자는 주자들이 눈가리개를 한 후에 촛불을 살짝 다른 장소로

옮겨 놓으면 재미있는 광경이 연출될 것이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진행자는 묶은 해를 보내면서 촛불을 끈다는 의미를 간단히 곁들여 보자.

7. 촛불 봉송

이번에는 “묵은 해여 안녕” 대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촛불봉송 릴레이를 한다. 팀 별로 초와 성냥을 한개씩 나누어 준다. 초에 불을 당긴 다음 시작신호가 울리면 불을 꺼트리지 않고 반환점을 돌아와서 다음 사람에게 촛불을 인계한다. 불이 꺼진 경우에는 그 자리에 서야 하며 성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달려가서 불을 당겨준다.



8. 불씨 건네기

옛날 옛적 여자가 시집을 가서 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것이었다. 참말로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러나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불씨는 여전히 소중하고 선선한 의미가 있다. 각팀의 첫번째 사람이 성냥통을 코와 윗입술 사이에 끼우고 옆사람에게 전달하는 릴레이게임이다. 양손은 뒷짐을 지고 사용할 수 없으며 성냥을 떨어뜨린 경우에는 앞사람이 끼워주고 계속한다.



9. 새해맞이 인사

참가자들에게 종이와 연필 한개씩을 나누어주고 각자 종이 왼쪽 가장자리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수직으로 내려 쓰도록 한다. 그리고 각 칸의 첫번째 글자로 시작하는 짧은 글로 된 새해 인사말을 적는다. 너무 심각한 내용보다는 재미있는 내용을 담아보자. 일단 참가자들이 모두 다 적은 후에는 돌아가면서 내용을 소개한다. 가장 재미있고, 기발한 내용의 글을 적은 사람에게 줄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 두자. 이 게임은 소모임에 적당하다.

10. 새해에는 열심이 뿜시다.

4팀을 나눈다. 커다란 부대자루 또는 비닐 푸대를 팀수 만큼 준비하여 출

발선에 놓아둔다. 시작이 되면 주자들은 신속하게 부대자루 속에 들어가서 짱충짱충 뛰어서 반환점을 들어온다. 찢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여분의 부대자루를 준비해 두자. 자! 올해에는 이 자루에 행복을 가득히 담아 봅시다.

게임에서 벌칙은 일반적인 체벌하고는 전혀 다르다. 벌칙을 당하는 사람도 즐겁고 보는 사람들은 더 즐거운 것이 게임 중에 가지는 벌칙이겠다. 또한 벌칙은 모임을 한층 즐겁고 흥미진진하게 해 주는 양념과 같은 것이다. 나도 벌칙에 한번 걸려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참가자들에게 들만큼 되는 게임이면 성공한 모임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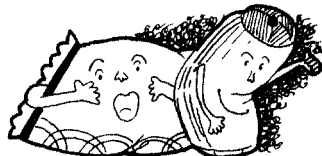
11. 달걀 삼키기

게임 중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을 앞에 세운다. 벌칙은 생달걀을 삼키는 것인데 진행자는 1m 길이에 직경 2.5cm의 투명한 플라스틱 호스를 준비하고 그 속에 생달걀 한개를 깨서 넣어 둔다. 두 사람이 양쪽 끝에 입을 대고 준비시킨 다음 시작 신호가 나면 서로 입김을 불어서 호스 속에 있는 달걀을 밀어 내도록 한다. 이 게임은 먼저 숨을 들이 쉬는 사람의 입속으로 달걀이 쏘옥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게임은 입김을 세게 낼 수 있다고 자부하여 자원하는 두 사람을 정하여 경연을 벌일 수도 있다.

12. 바나나 빨리 까먹기



4명을 앞에 세운 다음 바나나를 한개씩 나누어주고 눈가리개로 눈을 가린다. 진행자는 바나나를 손 만을 사용하여 껍질을 까서 빨리 먹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임을 알려준다. 눈가리개를 하고 모두 준비를 마치면 사회자는 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제자리로 되돌려 보낸다. 결국 한사람이 무대에 남게 되는데 진행자가 시작 신호를 알리면 혼자 허겁지겁 까먹는 모습이란 정말 우습기 짝이 없다.



13. 베개 싸움

술래에게 지적당한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베개를 한개씩 나누어 준다.

두 사람의 왼쪽 발을 각각 다른 밧줄로 묶은 두 사람들이 반대쪽 끝을 잡는다. 그런 다음 술래 두 사람의 눈을 가리고 베개 한 개씩을 나누어 준다. 시작이 되면 그 베개로 상대방을 때리도록 한다. 이때 밧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밧줄을 약간 몰래 잡아 당기면 두 사람은 서로 베개를 허공에 다 대고 계속 치게 될 것이다. 진행자는 숨겨 놓았던 다른 베개로 두 사람들을 오가면서 마구 때린다. 이 광경을 다른 사람이 실황중계를 하면 더욱 박진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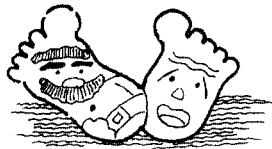
14. 스타킹 신기

남자 두 사람을 의자에 앉힌다. 두 사람의 눈을 가리고 양 손에 병어리 장갑을 끼운다. 그런 다음 신발과 양말을 벗기고 스타킹 한켠레씩 나누어 준다. 시작 신호가 나면 신속하게 스타킹을 빨리 신도록 한다.



15. 몽둥이 찜질

3~5명을 정하여 앞에 세운다. 전원이 신문지를 맡아서 몽둥이를 들고 눈 가리개를 한다. 진행자는 사람들에게 시작이 되면 몽둥이를 가지고 서로 사정없이 때릴 것을 알려준다. 시작이 되기 직전에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눈가리개를 벗겨 준다. 시작이 되면 눈가리개를 한 사람만이 꿀탕을 먹게 된다.



16. 발바닥에 명화를

남,여 여러 쌍을 앞에 세운다. 그리고 남자가 신발과 양말 한 쪽을 벗도록 한 다음 책상 위에 올라가서 발을 쭉 펴고 앉는다. 이번에는 여자들에게 매직펜(또는 수성펜)을 주고 자기 짝의 발바닥에 아름답고, 기발하고, 애교 넘치는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알다시피 간지럽기가 오죽이나 할까마는 남자는 절대 손으로 발바닥을 긁어서는 안된다. 보는 사람이 즐거우면 그만 아닌가? 아이고 국제야 니 나이가 얼마데 우째 그리 알군느냐. 나이 값 좀 해라 잉?

17. 벌 대신에 아이스크림을

각 팀별로 남,녀 한 쌍씩 나온다. 두 사람은 바닥에 눕는데 머리의 정수리가 서로 맞닿도록 눕는다. 그리고 머리말에다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접시와 손가락을 놓아둔다. 시작이 되면 여자들은 손가락으로 아이스크림을 펴서 남자의 입에 넣어준다. 이때 남,녀를 막론하고 머리를 돌리거나 움직일 수 없다. 아이스크림 그릇을 다 비울때까지 계속하며 보는 사람들이 보다 재미있게 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위에 초콜릿 시럽을 덮어둔다.

